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강원도민일보	22면	도의회 신청사 건립 지원단 구성… 내부 의견 수렴	1
江原日報	06면	“조기 폐광 여파 최소화 … 대체산업 찾아야”	1
ms투데이	온라인	강원자치도의회 찾은 중학생 “청소년 자살 생각률 높아, 심…	2
강원신문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신청사 건립 지원단(TF) 설치?운영	3
KBS 춘천	온라인	강원도의회, ‘도의회 신청사 건립 지원단’ 운영	4
江原日報	06면	“강원신보, 소기업 금융부실 리스크 관리 만전”	4
연합뉴스		박기영 강원도의원 "자영업자 대출 상환 여력 한계...대책 …	5
누리일보	온라인	강원도의회 박기영위원장, 강원신용보증재단 현장 의정활…	6
강원도민일보	22면	동해 묵호고 부설 방통고에 10대 골프 유망주 대거 입학	7
강원도민일보	16면	고성청년소상공인협회 창단	7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신중년 일자리에 주목하자	8
江原日報	21면	[동정] 심영곤 도의회 운영위원장(삼척)	9
강원도민일보	09면	[동정]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9
江原日報	10면	"전국 최고 첨단지식산업도시 도약 기회"	10
강원도민일보	13면	군민 숙원 인제종합운동장 올 상반기 첫삽	10
강원도민일보	01면	'강원형 첨단산업' 글로벌 거점화 동력 얻었다	11
江原日報	02면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춘천 보훈시설 설치·영동 저류댐 …	11
강원도민일보	02면	"주민 원하는 곳 케이블카 추가" 산림규제 빗장 해제 기대감	12
강원도민일보	02면	"양구서도 CT 촬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의료취약 호소	12
강원도민일보	02면	"토론회 언급사항 현안사업추진단 꾸려 해결"	13
강원도민일보	02면	농업인부터 대학원생까지… 각계 각층 송곳질의에 즉석 답…	14
강원도민일보	02면	윤 '각별한 강원사랑' 규제·지역현안 물꼬틀까	14
강원도민일보	03면	"강원현안 해결 의지 드러나" "선심성 정책 남발" 극명	15
강원도민일보	09면	춘천 미래 첨단산업 거점 6000세대 유입 기대	16
江原日報	06면	외국인 인구 느는데 정책은 20년 전 그대로	17
江原日報	07면	"판매사 최대 100%까지 배상" 강원문화재단 손실보상 촉각	17
강원도민일보	10면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열기 최고조	18

강원도민일보	12면	"태백 장성광업소는 '역사적 자산' 보존 필수"	18
강원도민일보	13면	군민 숙원 인제종합운동장 올 상반기 첫삽	19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공보의 파견 지역 의료공백 우려	20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첨단산업 공약 실천이 중요	21
江原日報	19면	[사설] 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	22
江原日報	19면	[사설]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약속' 빈말 돼선 안 돼	23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2일 (화)
인물 22면

도의회 신청사 건립 지원단 구성…내부 의견 수렴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오는 2028년 준공되는 신청사 건립을 두고 '도의회 신청사 건립 지원단'을 꾸려 내부의견을 수렴한다.

도의회 신청사 건립 지원단은 의정관이 단장을 맡아 청사기획팀, 청사시설팀 등 2개 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건축설계, 디자인 등 전문가와 도의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된 청사자문단이 가동된다. 권혁열 도의회 의장은 "신청사에는 도민 편의 공간도 마련하면 좋겠고, 도의원과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건립 준비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4년 03월 12일 (화)
종합 06면

"조기 폐광 여파 최소화…대체산업 찾아야"

도의회 폐광지역특위 당부
신청사 건립지원단 설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내 조기 폐광 여파를 최소화해 달라는 요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위원회가 11일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326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조성운(국민의힘·삼척) 도의원은 "올해 태백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고 내년 삼척 도계광업소가 문을 닫는다"면서 "(집행부에서) 주민들의 절실한 마음을 모르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최재석(국민의힘·동해) 도의원은 "폐광 이후에도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반영할 부분은 반영해 달라"고 조언했고, 심영곤(국민의힘·삼척) 운영위원장도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우영 도 미래산업국장은 "폐광기금을 만들어 많은 돈을 폐광지역에 투자했지만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대체산업을 발굴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도의회는 의회 내 신청사 건립 지원단(TF)을 설치,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조성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의정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청사기획팀, 청사시설팀 등 2개팀으로 운영된다.

권혁열 도의장은 이날 지원단 직원 임용장 수여식에서 "1990년 준공된 현재 도의회 청사는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있다"며 "신청사는 도민들 편의 공간도 마련하고, 도의원과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부터 완공까지 세심하게 사전 준비를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2024년 03월 12일 (화)
정치

강원자치도의회 찾은 중학생 “청소년 자살 생각률 높아, 심리센터 운영 필요”

진광찬 기자

도의회, 중학생 대상 청소년도의회 개최
청소년 사복 금지 열띤 찬반 토론 열려
자유발언서 “청소년 심리 센터 운영해달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역할을 체험해보는 ‘청소년도의회’를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중학생은 도내 청소년 자살률이 높다고 지적하며 심리 센터를 운영해달라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강원자치도의회는 지난 8일 도내 18개 시군 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도의회를 열었다. 이날 청소년도의회에 참여한 학생 53명은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 사무처장, 의사관 등으로 각각 역할을 나눠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했다.

청소년들을 실제 의사 방식에 맞춰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장 상정·의결, 5분 자유발언 등에 참여했다. 이후 제안된 안건 가운데 ‘청소년 사복 금지’에 대한 열띤 찬반 토론을 벌이고, 학교 동아리 지원 강화 촉구 결의안을 발표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8일 청소년도의회를 개최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특히 5분 자유발언에서는 청소년도의원들이 체감하는 학교·사회문제와 대안을 제시해 호응을 이끌었다. 먼저 강민서(홍천여중·3학년) 양은 도내 청소년 자살 생각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점을 지적했다. 강 양은 “도내 청소년 2054명에게 최근 12개월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13.2%가 ‘그렇다’고 답했다”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청소년 심리 센터를 운영해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형우(삼척 청아중·3학년) 군은 “입시 경쟁에 대한 스트레스나 학부모의 폭력 혹은 무관심 등 청소년기 사회환경적 요소도 학교 폭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열 강원도의장은 “이번 청소년도의회를 통해 도민 손으로 뽑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현장에서 직접 배워보는 값진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며 “도의회는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강원신문
지방시대 글로벌 리더 gwnews.org

2024년 03월 11일 (월)

자치의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신청사 건립 지원단(TF) 설치?운영

정찬범 기자

청사기획?청사시설 2개팀, 건축전문가 자문단도 구성 예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11일, '도의회 신청사 건립 지원단(이하, 지원단(TF))'을 설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조성사업'을 지원했다.

'지원단(TF)'은 신청사 설계공모 및 건축기본?실시설계 추진 시 도의회 청사 시설에 대한 설계지침 작성 및 사무공간 배치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으로 의정관이 단장을 겸임하고 청사기획팀, 청사시설팀 등 2개팀으로 운영된다.

청사기획팀은 도의회 신청사 건립 지원 총괄계획과 건축 공정별 대응 로드맵을 작성하고, 청사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예정이며, 청사시설팀은 설계공모 지침 작성, 사무공간 배치 및 동선 계획 수립, 평?입?단면 계획 등 신청사 건립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청사자문단은 건축 설계, 구조안전, 디자인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와 도의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도의회 신청사 설계지침, 배치도, 설계도 등을 검토하여 타 지자체의 신축 청사에서 나타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원단(TF)'은 道와 협의를 거쳐 도의회 신청사 면적, 공간배치 등 설계공모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사자문단의 자문을 받아 상반기 중 설계공모를 위한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를 확정하고, 신청사 조성사업 공정에 맞춰 도의회 차원의 의견을 道와 설계?시공사 등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의장은 '지원단(TF)' 직원 임용장 수여식에서 "1990년 준공된 現 도의회 청사는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와 사무공간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있으니, 신청사는 도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편의 공간도 마련하고, 도의원과 특히,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에서부터 완공될 때까지 세심하게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정찬범 기자 gwnews@hanmail.net

신아일보, 엔사이드 등 33개 언론사 보도

2024년 03월 11일 (월)

KBS 춘천

강원

강원도의회, '도의회 신청사 건립 지원단' 운영

강원도의회가 청사 신축 이전에 대비하기 위한 '도의회 신청사 건립 지원단'을 오늘(11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원단은 도의회 청사 설계 지침 작성과 사무 공간 배치 계획 수립 등을 담당합니다.

도의회는 올해 상반기 안에 신청사에 대한 구상을 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와 도의회는 2028년까지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로 동반 이전할 예정입니다.

김영준 yjkim1@kbs.co.kr

2024년 03월 12일 (화)

江原日報

종합 06면

"강원신보, 소기업 금융부실 리스크 관리 만전"

도의회 산하기관 현장의정활동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강조

강원자치도의회 의장단이 11일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현장 의정활동에 나선 가운데 금융부실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당부의 목소리가 나왔다.

권혁열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은 이날 강원신용보증재단, 강원테크노파크, 강원연구원 등을 찾았다. 의장단은 지난 4일부터 도 산하기관 14개소를 순회 방문, 현안을 파악하고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강원신용보증재단 방문에서 "강원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이 경기 불황으로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도와 재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기자

연합뉴스

2024년 03월 11일 (월)
종합

박기영 강원도의원 "자영업자 대출 상환 여력 한계...대책 필요"

강원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 눈덩이.신용보증 사고도 급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강원신용보증재단 방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춘천3.국민의힘)은 11일 의장단과 함께 강원신용보증재단을 찾아 금융시스템 부실 위험에 따른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자영업자를 대신해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548억1천800만원으로 전년과 견줘 3배 이상 늘었고, 대위변제 비율도 0%대에서 2.72%로 대폭 상승했다.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 금액은 1천84억3천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 증가했고, 사고 비율도 최근 4년간 1.4%대에서 4.16%로 늘었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점들을 들어 "도내 자영업자들이 거의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반해 강원신용보증재단 손익계산서를 보면 재단의 영업수익은 2022년 203억원에서 2023년 431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또한 여전히 4억원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고, 금융시스템 부실 위험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며 "도와 재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를 완벽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

2024년 03월 11일 (월)

누리일보

전국

강원도의회 박기영위원장, 강원신용보증재단 현장 의정활동 나서

"금융부실 리스크 관리와 자영업자 지원대책 마련 촉구"

신현길 기자 nr0605@nuriilbo.com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춘천3,국민의힘)은 도의회 의장단과 함께 현장 중심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서 도 산하기관 14개소 순회 방문에 나선 가운데,

3월 11일 강원신용보증재단을 찾아 "강원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이 코로나19에 이어 고물가·고금리 지속 등 경기 불황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따른 금융시스템 부실위험에 따른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함께 주문했다.

박위원장은 "지난해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자영업자를 대신해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548억 1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대위변제 비율 또한 0% 대에서 2.72%로 수직 상승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출을 갚지 못한 사고금액도 1084억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3%로 대폭 증가했고 사고비율도 최근 4년간 1.4%대에서 4.16%로 높게 나타났다"면서 "도내 자영업자들이 거의 한계상황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강원신용보증재단 손익계산서를 보면, 재단의 영업수익은 22년 203억에서 23년 431억으로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했고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또한 여전히 4억원대 중반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위원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고 금융시스템의 부실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다"면서 "도와 재단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즉각적인 지원대책 마련과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명성일보, 뉴스줌 등 37개 언론사 보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2일 (화)
인물 22면

동해 묵호고 부설 방통고에 10대 골프 유망주 대거 입학

신입생 24명 중 선수 7명 포함
운동·학업 병행 맞춤 진학 선택
총동창회 "내달쯤 골프부 창단"

일반적으로 고연령층이 입학하는 곳으로 알려진 동해 묵호고 부설 방송통신고에 10대 골프 유망주 7명이 입학해 화제다. 묵호고 부설 방송통신고 입학식 모습. 사진제공=묵호고총동창회

동해묵호고가 운영하는방송통신고에 10대 남·녀 골프 유망주 7명 대거 입학해화제다.

묵호고 부설 방송통신고(교장 고상현)는 지난 10일 교내 시청각실에서 졸업생들과 이상웅 묵호고총동창회장, 김기하 도의원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신입생 입학식을 열어 학교장의 신입생 24명에 대한 입학 허가 선언과 신입생 대표의 학생 선서를 가졌다.

이들 입학생들 중에 특이하게도 경기도 용인시 관내 중학교를 졸업한 여자 4명, 남자 3명 등 7명의 골프 선수 청소년들이 있어서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 일반적으로 방송통신고는 학생들 대부분이 학업시기를 놓친 고연령층의 성인들이 주로 입학해 배움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일반고를 진학하지 않고, 2주마다 학교수업에 참석하면서 운동과 학업을 동시에 하기에 안성맞춤인 묵호고 방통고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지난해 5월 26일 티앤아이그룹과 골프저널이 공동주최한 '가누다배 제22회 골프저널 주니어 골프대회' 여장중등부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김보결(16·여) 선수가 있다. 김 선수는 중2학년때인 지난 2022년 4월 21일 그랜드C.C에서 열렸던 '충남 골프협회장 배 골프대회'에서도 중등부 2위를 차지하는 등 뛰어난 실력에다 영어회화도 잘하고, 신장 170㎝의 월등한 체격조건을 가진 유망주다.

묵호고총동창회는 모교의 오랜 전통을 가진 정구부가 해체됨에 따라 지난 2022년부터 마침 '골프부 창단'을 추진해 오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번 골프 유망주들의 방통고 대거 입학으로 오는 4월쯤 골프부 창단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인수 jintru@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2일 (화)
지역 16면

고성청년소상공인협회 창단 고성청년소상공인협회 창단식 및 초대회장 취임식이 최근 간성전통시장 다목적 고객센터에서 함명준 군수, 김일용 군의장, 이지영 도의원, 황재득 강원청년소상공인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장길현 초대회장이 취임했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12일 (화)
오피니언 19면

강원포럼

신중년 일자리에 주목하자

박윤미 강원자치도의원

우리는 종종 우려 섞인 목소리로 초고령사회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 청년이 떠난 지방의 문제점을 이야기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고령화 추세는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라는 두드러지는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이 23.0%로 건강 23.7%에 이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결국 노인 세대의 빈곤과 자살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 강원자치도 차원에서 노년기의 경제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근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중년' 세대에 특화된 일자리 정책의 설계를 제안한다.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 노후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로, 부모와 자녀 세대에 대한 부양의무를 동시에 짊어지고 있다. 그들이 가구 소득의 89.4%를 근로·사업 소득에 의존하다 보니 신중년 세대 일자리 안정성이 전 세대의 경제적 지속과 안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 연령은 2023년 5월 기준 49.4세다. 대부분 50세가 돼서 재취업을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37.3% 낮은 임금을 받고 주된 일자리와 약 60% 정도만 직무 관련성이 있는 업종에 종사하게 된다.

청년부터 업무를 익혀 그 전문성이 무르익었지만, 주된 일자리 퇴직으로 인해 활용할 수 없고, 오히려 전보다 낮은 임금으로 부양의무와 노후 대비를 해 나가야 한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며, 개인으로서도 노후 대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다.

신중년 세대는 2026년 전체 인구의 32.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돼 앞으로 노동인구의 다수를 이룰 것이다. 노동시장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도 신중년 일자리 정책에 대한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다.

신중년 세대가 가진 업무 전문성과 인재가 필요한 지역 산업을 연계해 교육부터 취업까지 신중년을 재성장시키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정주를 이뤄낼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시행된다면, 중장기적으로 노인 빈곤 문제는 물론 지역소멸까지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어본다.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신중년을 대상으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이 시작됐다. 경기도는 40세 이상 65세 미만 도민을 대상으로 직업교육훈련에서 일자리 연계까지 아우르는 '신중년 일자리 센터'를 2022년에 개소했다. 또한 행안부는 2022년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광명시, 익산시, 서울 동작구, 인천광역시를 선정하고 통합공간 조성 사업을 진행해 신중년의 재취업을 지역 실정과 연계해 꾸려 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강원도는 신중년 일자리 센터는 물론 우리 지역의 특화된 신중년 일자리 지원 사업을 찾기 힘들다. 정부 주도의 정책이 아닌, 우리의 실정과 특색이 반영된 강원도의 특화된 신중년 정책이 절실하다. 신중년의 일자리는 새로운 노동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제2의 인생,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기 위해 신중년의 일자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우리 도는 소외됐던 신중년 일자리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12일 (화)

인물동정 21면

◇심영곤도의회 운영위원장(삼척)은 12일 오전 11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산회 후 도의회 현관 앞에서 동해선 고속화철도 단절구간(삼척~강릉)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을 발표.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2일 (화)

인물동정 09면

박기영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12일 오후 3시 원주에서 열리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협의에 참석한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12일 (화)
지역 10면

"전국 최고 첨단지식산업도시 도약 기회"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정
광판리에 9,364억원 투입
368만㎡ 규모 도시 조성
시 사업체 유치 탄력 기대

【춘천】춘천시가 19년 전 기업도시 탈락의 한(恨)을 '기업혁신파크' 유치로 풀어냈다.

춘천시는 기업혁신파크에 IT, 바이오기술(BT),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야의 기업과 연구시설을 모아 전국 최고의 첨단지식산업도시로 비상한다.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남산면 광판리 368만㎡에 첨단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9,364억원이 투입되고 2033년 조성이 마무리될 계획이다. 도시 개발을 이끌 앵커 기업으로는 국내 ICT 업계 선두 기업인 더존비즈온이 참여한다.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시가 역점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의 무대가 된다. 또 기업도시특별법 개정에 따라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가능해졌고 정부가 기회발전특구와 기업혁신파크 연계 개발을 조치하면서 기업 유치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2005년 기업도시 탈락의 고배를 마신 시로서는 기업도시 시즌2로 불리는 기업혁신파크 선정의 기쁨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 당시 기업도시 사업지로 선정된 지자체와 비교해 시는 지역 발전 정체와 인구 역전을 겪기도 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이 11일 남산면 광판리 일대에 마련된 기업혁신파크 사업부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춘천시는 이날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됐다. 신세희기자

이후 2022년 정부가 기업혁신파크 정책을 새롭게 꺼내면서 기회가 찾아왔다. 절치부심하던 시는 기업도시TF팀을 발빠르게 구성하며 사전 준비에 매진했다. 정부 공모 발표에 맞춰 더존비즈온과 신한은행이 파트너로 합류했고 시와 유관기관·참여기업들은 기업혁신파크 유치 포럼을 두 차례 개최하며 방향성을 정립해 나갔다.

또 시는 올해 초 법률 개정이 지연될 상황에 놓이자 국회와 정부 부처를 오가며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육동한 시장은 기업혁신파크 선정이 확정된 11일 남산면 광판리를 찾아 "춘천이 기존의 틀을 뛰어넘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유례없는 기회를 맞았다"며 "주거와 문화예술·교육 등 모든 기능이 연계된 도시 모델,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미래형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혁신파크 성공을 위한 새로운 준비를 이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윤호기자 jyh89@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2일 (화)
지역 13면

군민 숙원 인제종합운동장 올 상반기 첫삽

이슈현장

문화·체육 랜드마크 조성 박차
450억원 투입 2026년 완공 목표
전국대회 유치 공인경기장 마련

인제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역내 문화·체육·복지 랜드마크 역할을 할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인제군은 스포츠도시 도약 기반 마련과 스포츠마케팅·지역경기 활성화, 주민 문화·체육복지 증진 등을 위해 인제종합운동장을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뜬다.

군은 2024년 3월중 인제종합운동장 공사 입찰 공고를 내는 등 본격적인 공사 착수 준비에 들어가 올 상반기중으로 착공, 오는 2026년까지 국·도비 포함해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해 완공할 예정이다. 인제종합운동장은 인제읍 남북리 517의2번지 일원 부지 10만6342㎡ 규모에 5000석 관중석과 8개의 육상 트랙, 천연잔디구장과 보조구장 등을 갖춘 대규모 체육시설로 지어진다.

군은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신설 사업 승인을 받아 그동안 문화재지표조사, 토양오염정화작업, 3대 영향평가(소규모환경·재해·교통), 건설기술심의, 조달청 원가심사, 사업부지내 국방부 소유 토지 소유권 이전 등 사전 작업과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인제읍 남북리에 조성되는 인제종합운동장이 올해 상반기중으로 착공된다.

인제종합운동장이 오는 2026년 완공과 더불어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제2종 육상경기장 공인인증을 받게 되면 전국단위 육상종목 대회 유치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군도 향후 도민체전과 국제친선대회 등 전국규모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23년 60개 대회와 56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75억원의 지역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올해는 60개 스포츠대회와 70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92억원의 경제효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춘미 체육청소년과장은 "인제종합운동장이 완공되면 도민체전을 비롯한 전국규모의 대회 개최 여건을 갖추게 된다"며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교원 kwchine@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2일 (화)
종합 01면

'강원형 첨단산업' 글로벌 거점화 동력 얻었다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
윤석열 대통령 행사 참석 기념사
민생토론회서 데이터산업 약속
기업혁신파크 춘천 최종선정까지
민주 도당 "명백한 관권선거"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춘천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서 김진태 도지사와 착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김정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형 첨단 산업이 날개를 달았다. 또, '기업도시 시즌2'인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지로 춘천시가 최종 선정되면서 광판리 일원 368만㎡를 디지털 복합 기업도시로 조성하는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청에서 주재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 열아홉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강원 첨단산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안보·경제·안전·환경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강원에 큰 빚을 지고 있어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한다. 더이상 희생과 헌신을 강요해선 안된다"며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강력하게 뒷받침해야 한다. 강원도 주력산업을 디지털과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디지털과 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강원형 첨단산업 재편과 연결되는 '333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원을 데이터 산업 수도로 만들 것이다.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 프로젝트'가 조기 성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강원 철도망·도로망 조기 연결도 약속했다. GTX B·D 노선을 각각 춘천과 원주까지 연결하고 동서고속화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닭갈비 오찬 후 봄내체육관에서 열린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에 참석했다. 춘천 동면 일대(81만 6000㎡)에 2027년까지 국내 첫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강원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강원도 첨단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면서 "춘천이 대한민국 데이터산업의 수도를 넘어 글로벌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도당은 총선을 한달 앞둔 이날 열린 윤 대통령 주재 강원민생토론회에 대해 "명백한 관권선거"라며 반발했다. 박창현·김덕형

▶관련기사 2·3·9면·영상 kado.net

江原日報
2024년 03월 12일 (화)
정치 02면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춘천 보훈시설 설치·영동 저류댐 건설"

윤 대통령 지역 현안 청취 '6가지 약속'
데이터밸리 조성·의료취약지역 장비 지원 긍정 답변
석탄 경석 건자재 활용 위해 관련 규제 개선 등 약속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참석한 시민 및 각계 인사들로부터 각종 숙원사업을 쉴 새 없이 듣고 적극적으로 답했다.

데이터 산업 육성과 산림규제의 완화, 춘천 보훈시설의 필요성, 의료환경 개선, 영동지역 물 부족 상황 개선, 폐광지역 재생 등 다양한 요청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담당 부처 관계자의 의견에 더해 직접 '6가지 약속'을 했다.

먼저 데이터센터 기업인인 유기훈 ㈜데우스 대표가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의 조속한 준공 필요성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데이터의 중요성을 '화폐'에 비교하면서 "데이터 산업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키워야 하고, 강원을 데이터 산업 생태계의 거점으로 만들려는 이유"라며 "지방정부와 고등교육기관이 협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했다.

전영록 도이통장연합회장은 "동계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의 곤돌라를 존치하고, 올림픽 정원을 조성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해 주목받았다. 이에 대해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산악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모두발언에서 가리왕산의 국가정원 조성을 약속했던 윤 대통령도 "환경부와 국토부, 산림청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풀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나아가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가유공자 진성균(91)씨가 요청한 춘천 보훈시설 필요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6·25전쟁 당시) 6사단이 인민군 정예 2개 사단을 목숨 걸고 막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켜졌다"며 "(이제) 강원도의 관광을 안보·보훈과 문화, 교육 등 3개 축을 연결할 수 있도록 보훈시설을 활용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강원자치도를 위해서는 고가의 첨단 장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동지역의 물 부족 현상 개선을 위한 저류댐 설치, 석탄 경석을 건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2일 (화)
종합 02면

"주민 원하는 곳 케이블카 추가" 산림규제 빗장 해제 기대감

윤 대통령 강원 민생토론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탄력
"1300억원 경제효과 지역 활력"
가리왕산 산림형 정원조성 약속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힘!'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정호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실제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또, 평창올림픽 당시 알파인 스키 경기장으로 활용됐던 정선 가리왕산은 산림형 정원으로 조성된다.

강원도민의 40여 년 숙원이자 윤 대통령의 강원1호 대선 공약인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지난해 첫 삽을 뜬 가운데 케이블카 추가 건설 계획이 발표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규제 대폭 해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청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강원도 1호 공약이자 40여 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케이블카가 작년에 착공됐다"면서 "2026년에 본격 운영되면 130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로 지역에 큰 활력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당시 환경훼손 논란 등 환경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았던 만큼, 윤 대통령이 이날 케이블카 추가 건설 계획을 밝히며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은 것을 두고 여론 향방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 산림자원 개발에 대해 "국유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이용이 쉽지 않다"며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 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 관광열차,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 이를 통해 강원 산악관광을 관광산업의 한 축으로 세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가리왕산 정원 조성 사업을 두고는 "주민들께서는 이 지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산림형 정원 조성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리왕산 자연과 올림픽 유산을 더 많은 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산림형 정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올해 7월까지 한국산림과학회, 한국정책학회 등과 함께 가리왕산 문화유산 보존과 효과적 활용 등 산림효용 극대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박지은·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2일 (화)
종합 02면

"양구서도 CT 촬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의료취약 호소

어떤 건의 나왔나

수소산업 등 청년일자리 확대 언급
산악관광 규제 완화 등 현안 다수
우동기 '비수도권 토론회 분위기 최고'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도청에서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선 취약지 의료시설 개선, 지역 청년일자리 확대, 산악관광 규제완화 등 지역현안이 다수 언급됐다.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여한 양구군민 박한수 씨는 "의료법상 병원에 병상 수가 일정 수 이상이 돼야 씨티(CT), 엠알아이(MRI) 같은 장비를 구비할 수 있다"라며 "양구의 조그마한 지역에서도 병원에서 씨티 촬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취약지 의료인프라 개선을 호소했다. 박 씨는 "농촌이 인구 소멸지역인데, 불편하면 그 법도 좀 완화해서 일단 사람이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도 언급됐다.

강원대 대학원생 김수빈 씨는 "많은 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아 강원도가 아닌 타지역으로 떠나고 있다"라며 "저도 취업할 때가 되면 수도권으로 떠나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토로하며 수소산업 등 산업분야 일자리 확대를 건의했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선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조기 준공, 기업 규제 완화, 산악관광 사업 규제완화, 정선 가리왕산 국가정원 조성, 보훈문화시설 확대, 강릉 연곡면 물 부족 문제, 태백 폐경석 활용방안 마련 등이 언급됐다.

이날 도청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는 19번째 순서이자 비수도권 토론회로는 9번째다. 이와 관련,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토론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수도권 민생토론회 가운데 오늘 분위기가 제일 좋았다"며 "강원도민이 발표를 잘했고, 대통령이 기분 좋게 발언했다. 오늘이 대단히 길일인 것 같다"며 밝혔다.

우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 정부 중에 가장 특색이 있는 지역 맞춤형 분권정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설화·김덕형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2일 (화)
종합 02면

“토론회 언급사항 현안사업추진단 꾸려 해결”

김 지사 도청 브리핑

‘기업혁신파크·데이터 수도·약속’ 3대 키워드 꼽고 중점추진 의지

강원특별자치도가 ‘현안사업추진단’을 꾸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등 강원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도내 주요 사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김진태 지사는 11일 오후 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도내 거의 모든 주요 현안을 다 언급했다”며 “이제 저희들(강원도)은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현안사업추진단’을 구성해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됐던 주요 현안을 전부 리스트업 한 뒤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3대 키워드로 “기업혁신파크와 데이터수도, 약속”을 꼽았다. 거제시와 당진시에 이어 전국 세 번 째로 기업혁신파크를 도내 유치한 점을 강조하고, 2027년 조성이 완료되는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발판삼아 국내 데이터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을 지키겠다”며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산업기지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을 두고 “강원도(강릉)의 외손 답게 강원도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11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도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민생토론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다. 김정호

특히, 김 지사는 기업혁신파크 춘천 선정과 관련해 “기업도시 시즌2, 이제 드디어 춘천에 유치를 한 것인데, 강원도에서 단독 신청을 한 것이다”라며 “춘천시민들과 육동한 춘천시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부터 열심히 기업혁신파크를 잘 챙겨나가겠다”고 했다.

김덕형 duckbr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2일 (화)

종합 02면

농업인부터 대학원생까지… 각계 각층 송곳질의에 즉석 답변

누가 참석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강원 민생토론회는 지역현안과 관련된 기업인, 농업인, 관광업계 종사자와 국가유공자, 마을이장, 전업주부, 대학원생 등 각계각층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현안과 관련된 송곳질의에 이은 즉석 답변 시간으로 진행됐다. 11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집중 육성중인 첨단산업분야와 자동차 관련업체 기업인으로 유기훈㈜데우스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부문 대표, 전창대㈜더픽트 대표, 송준혁㈜늘품내진이앤씨 대표, 배기환㈜서안프로텍대표, 박인규㈜제아이앤지 대표, 홍승기 에스지산업 대표, 임근영 디앨㈜대표 등이 참석했다. 홍천 출신 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도 초청됐다. 또 전영록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강원지부장(정선읍이장), 손용수 강릉이장협의회장, 전희민 주부(춘천), 박한수 농업인(양구), 유병욱 태백시 환경과장, 최시은 강원문화관광해설사 등도 토론현장을 지켜봤다. 정부측에서는 한화진 환경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남성현 산림청장, 박재현 물통합정책관 등 정책책임자와 실무자가 대거 참석, 질의에 답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이기정 의전비서관, 김수경 대변인, 이병화 기후환경비서관, 최영해 정책조정비서관 등이 현장을 지키며 대통령을 보좌했다.

박창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2일 (화)

종합 02면

윤 '각별한 강원사랑' 규제·지역현안 물꼬틀까

취임 전·후 6번째 강원행, 의미는

김 지사 "강원현안 속도 호재"

강원도청에서 열아홉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이 임기 중 4번째 방문이다. 2022년 5월 취임전 당선인 신분으로 두차례 방문한 일정을 고려하면 2년새 총 6차례나 강원도를 찾은 셈이다.

이는 평소 '강원의 외손주'라고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의 강원도에 대한 애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각종 규제와 지역현안의 해법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잦은 강원방문은 남다른 의미를 지닌다는게 대통령실 관계자의 전언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2022년 10월 18일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식에 첫 참석한 데 이어 지난 해 6월 9일 강원대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기념사를 전하고 막국수로 오찬을 했다. 앞서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 총리급이 참석했지만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참석, 강원도에 대한 애착을 드러내기도 했다. 올해 1월 19일 강릉에서 열린 2024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식에도 토마스바흐 IOC위원장과 함께 나란히 자리를 지켰다.

이어 두달만인 11일 강원도청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뒤 춘천닭갈비를 메뉴로 점심식사를 했다.

김진태 지사는 "강원도의 외손이신 대통령이 확실하게 강원도를 챙긴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며 "기업혁신파크 등 강원현안이 속도감있게 풀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비수도권에서 열린 아홉번째 민생토론회인데 오늘 분위기가 가장 좋았다"며 "대통령도 굉장히 기분좋게 발언했다"고 안방같은 현장분위기를 전했다.

박창현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2일 (화)
종합 03면

"강원현안 해결 의지 드러나" "선심성 정책 남발" 극명

윤 대통령 강원방문 여야 반응

여 "정책 추진 뒷받침" 야 "관권선거"

4·10총선을 한 달 앞둔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강원도청에서 민생토론회를 갖고 규제완화 등 강원 주요현안 조기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을 두고 도내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업혁신파크 춘천 선정을 비롯해 강원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 및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B와 D노선의 춘천·원주 연결 등 강원 현안 조기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도내 여권 후보들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정책 추진력'을 강조하며 뒷받침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후보는 논평을 내고 "토론회에선 강원특별자치도 이름에 걸맞은 규제 합리화, 첨단과 관광 산업 발전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지역발전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입법부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 성과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혜란 춘천갑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직접 강원도를 방문해 희소식을 전해준 윤대통령께 감사를 표한다"며 "정부 여당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춘천 기업혁신파크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도내 야권에선 "명백한 관권선거"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송기헌(원주을) 후보는 "2년 동안 아무런 노력도 없다가 선거 때가 되니, 이제서야 지역 현안을 얘기한다"고 지적했고, 김도균 속초·인제·고성·양양 후보와 허필홍 홍천·횡성·영월·평창 후보도 "지역 후보들은 실현 가능성 등을 따지며 조심스럽게 공약을 다듬는 이 시점에 선심성 정책을 남발, 총선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직격했다. 여야 도당의 반응 역시 크게 엇갈렸다. 국민의힘 도당은 "윤 대통령은 강원도의 현안을 하나하나 직접 거론하며 적극적인 추진과 해결의 의지를 표명, 도민들에게 속이 확 뚫리는 사이다 한방을 선사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 도당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 관권선거운동을 주도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세훈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2일 (화)
지역 09면

춘천 미래 첨단산업 거점 6000세대 유입 기대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선정

준비기간 2년 만에 성공 '쾌거'
남산면 주거·교육시설 구축
"판교 뛰어넘는 미래형 도시로"

육동한 춘천시장이 11일 남산면 기업혁신파크 사업 부지 일원에서 현장 브리핑을 갖고 사업 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박재혁

춘천시가 11일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2005년 원주에 밀려 기업도시 지정에서 고배를 마신 춘천시는 20여 년 만에 한을 씻어낼 수 있게 됐다. 2021년부터 해당 사업을 준비해 온 춘천시는 2년 간의 준비기간 끝에 선정에 성공했다. 남산면 광판중학교 일원 368㎡ 부지에 첨단지식산업시설과 주거·교육·복합문화 체육시설 등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 민간기업 주도 복합기능 갖춰

기업도시 시즌2라고 불리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은 민간기업이 주도해 자족적 복합 기능을 고루 갖춘 하나의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 선정에 따라 춘천시는 첨단산업과 주거·교육·의료·문화가 어우러지는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춘 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사업 위치는 남산면 광판초교 일대로 면적은 368만㎡다. 이곳에 첨단지식산업시설(IT·BT·AI·데이터 등), 연구시설, 상업·업무시설, 주거시설, 교육시설, 복합문화 체육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춘천시는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과 더불어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해 춘천에 걸맞은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등 정부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추가적인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6000세대 규모의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 민선 8기 원팀 사업 지정 총력

이번 성과는 춘천시 전 공무원이 한 마음으로 움직여 이뤄낸 쾌거라는 점에서 남다르다. 육동한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기업혁신파크 유치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를 수차례 방문하며 협조와 선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육동한 시장과 백창석 부시장을 중심으로 홍문숙 경제진흥국장, 최인숙 투자유치과장, 김득정 기업도시TF팀장이 원 팀을 이뤄 수시로 국회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의 순항을 위한 준비도 들어간다. 춘천시는 올 하반기 전담 조직을 부서 단위로 상향 개편하고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국도 5호선 동산면~북방면 18㎞ 구간과 국지도 86호선 동산면 조양리~군자리 3.8㎞ 구간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도 이미 신청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11일 오후 남산면 현지에서 브리핑을 갖고 "강원특별자치도 중심도시로서의 명예와 위상을 회복하기 위한 대표적인 아젠다가 바로 기업혁신파크였다"며 "무엇보다 함께 고생해 준 사랑하는 춘천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춘천의 기업혁신파크가 분명 수도권 판교를 뛰어넘는 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미래형 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 지역사회 환영

기업혁신파크에 춘천이 선정되자 지역사회도 축제 분위기다.

김진호 춘천시의장은 "혁신파크 유치 및 수열클러스터 착공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춘천시의회도 두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 의료·바이오, 데이터 등 미래 첨단산업이 우리 시의 핵심 산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신영묵 춘천시이통장연합회장은 "기업혁신파크 유치로 춘천시가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얻게 됐다"며 "기업혁신파크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장식 남산면이장협의회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오세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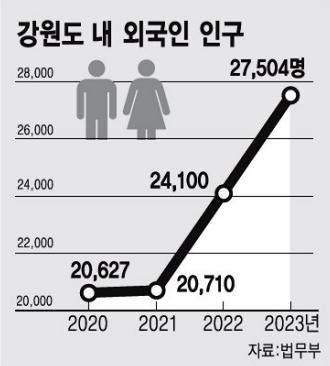
2024년 03월 12일 (화)
江原日報
종합 06면

외국인 인구 느는데 정책은 20년 전 그대로

올해 도내 2만7,494명 거주중
증가 속도 전국 대비 2배 빨라
지자체 사업 타 지역보다 적어
유학생·노동자 지원책 태부족

강원지역 대표 전통시장인 속초관광수산시장은 알바생 대부분이 인근 고성 A대학의 유학생이다. 닭강정, 튀김 등을 만들어 파는 점포마다 네팔 등에서 온 유학생을 1명에서 많게는 5명씩 두고 있다. 상인회 관계자는 "내국인은 공고를 아무리 내도 오지 않기 때문에 유학생은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강원지역의 외국인 인구 증가 속도가 전국보다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자체의 외국인 지원 정책이 빈약해 '강원도 거주 외국인'은 전국 대비 1%에 그치고 있다.



11일 법무부가 공개한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강원지역의 외국인 인구는 2만7,494명으로 10년 전보다 56.5% 증가했다. 전국 증가율은 절반인 29%였다. 거주 이유를 알 수 있는 체류 자격별 인원을 보면 고용허가제(E-9)가 5,043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학 비자(D-2)가 4,108명으로 그 다음이었다. 기업 및 대학의 외국인 의존도를 보여줬다.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고성(6.8%)이었고, 횡성(2.7%), 양구(2.2%), 속초·철원(2.1%), 강릉·인제·평창·홍천(1.8%) 순이었다. 도내 외국인을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이 6,088명(22%)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 5,668명, 네팔 2,342명 등이었다.

강원도의 외국인 지원 정책은 타 시·도보다 폭이 좁았다.

광역·기초지자체의 제3차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2018~2022년)을 보면 강원지역의 사업은 61개로 전남·충남(110개), 충북(100개), 경북·경남(80개) 보다 적었다. 시·군별로는 결혼 이민자,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위주로, 모두 20년 전부터 추진됐던 정책이다. 외국인 유학생 및 노동자를 위한 지원 정책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국내 외국인은 189만여명 가운데 강원도 비중은 1.5%에 그쳤다.

홍형득 강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인 수 늘리기를 넘어 고급 전문인력 확보 계획까지 필요하다. 시·군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

2024년 03월 12일 (화)
江原日報
경제 07면

"판매사 최대 100%까지 배상" 강원문화재단 손실보상 촉각

금감원 ELS 배상기준안 발표
"억울한 손실엔 합당한 보상"
판매·투자자별 요인 세분화

속보=강원문화재단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50억원 투자 이후 상당 부분을 잃을 위기(본보 2월26·27일자 2면 등 보도)에 처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판매금융사가 최대 100%까지 배상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마련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의 투자자 손실 배상과 관련,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기준안에 따르면 판매금융사는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을 해야 한다.

금감원은 홍콩 ELS의 대규모 손실 배경으로 무리한 실적경쟁을 조장해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고,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임의조정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은 물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불완전판매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분쟁조정 기준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이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서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강원문화재단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농협과 신한은행을 통해 홍콩 H지수 ELS에 10억원씩 5차례, 총 50억원을 투자했다. 재단이 보유한 예금 등 총 기본재산 217억원 중 23%에 달한다.

강원문화재단이 가입한 ELS의 만기는 모두 3년으로, 이 중 농협을 통해 10억원에 가입한 상품이 지난달 말 가장 먼저 만기가 도래했다. 재단이 환급받은 금액은 4억4,300만원으로 수익률은 마이너스 55%였다. 신한은행에 투자한 40억원 규모의 4개 ELS상품은 올 7월까지 차례로 계약이 끝난다. 이규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2일 (화)
지역 10면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열기 최고조

시의회 촉구안 만장일치 채택
시·지역사회 최적 입지조건 어필
교통망·의료인프라 등 탁월

속보=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를 향한 지역사회 열기(본지 3월 11일자 10면 등)가 확산되고있다.

원주시의회(의장 이재용)는 11일 제2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황정순 시의원이 발의한 '국제스케이트장 원주 유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시가 대한체육회 공모에 제안한 건립 부지는 판부면 서곡리 옛 1107야공단 부지다. 시와 지역사회는 수도권과 근접한 교통중심지 등 원주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점을 내세우며 유치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체육회와 종목별 체육연맹들도 각종 행사때 마다 유치 기원 행사를 열며 열기를 지피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원주는 KTX역 3곳, 고속도로 3개 노선, 국도, 원주공항에 이어 오는 2028년 여주~원주 복선전철 개통을 앞두고 있는 등 우수 광역 교통망이 장점이다. 또 원주는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로 국내 유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연구센터인 연세의료원, 종합병원, 닥터헬기 등 의료인프라가 우수하다. 선수들의 학습병행을 위한 6곳의 대학도 위치, '선수 중심'의 시설 건립이 가능하다. 강릉원주대 육상트랙, 연세대 미래캠퍼스 스포츠센터, 명륜동 국민체육센터 등 선수들이 빙상 훈련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훈련시설도 갖추고 있다. 특히 유치 후보지의 경우 평지에다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고 있어 기반시설 구축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시의회는 "교통 편리성, 의료·훈련 인프라, 교육 여건 등 최고, 최적의 조건을 갖춘 원주가 국제 빙상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혜민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2일 (화)
지역 12면

"태백 장성광업소는 '역사적 자산' 보존 필수"

현대위, 갱내 수몰 반대 성명
폐갱 활용 대체산업 마련 촉구
"광해복구사업 시민 뜻 담겨야"

태백지역사회가 오는 6월말 폐광하는 장성광업소의 보존을 기초로 한 광해복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태백시현안대책위원회(이하 현대위)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용역 시행 주체들은 폐갱도를 활용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쉽고,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 방법인 폐갱수로 장성광업소를 수몰시켜 광해복구사업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고 있다"며 "조기 폐광으로 남겨지는 광산근로자와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대한석탄공사 광해개황조사 및 종합복구대책 수립용역의 결과물은 온전한 장성광업소의 보존을 기초로 한 광해복구가 답"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광으로 인한 도시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대체산업으로 미래에너지인 청정메탄올, 핵심광물 국가산업단지, 스마트마이닝사업 등이 힘있게 추진중에 있고, 대체산업은 장성광업소 폐갱을 활용했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며 "광해복구사업은 시민 뜻으로 진행돼야 하고, 중앙정부는 대체산업 추진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위는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해복구 대책에 대한 용역 결과로 '갱내 수몰'이라는 무책임한 결과를 도출했다"며 "장성광업소 지하 갱내시설은 산업·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대한민국의 산업유물을 수몰한다는 계획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김주영 현대위 위원장은 "지하 갱내시설은 한번 수몰되면 다시는 복구할 수 없는 만큼 활용 방안을 찾고 사업·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간적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산업적, 관광적, 군사용, 방호·방제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우열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2일 (화)
지역 13면

군민 숙원 인제종합운동장 올 상반기 첫삽

이슈현장

문화·체육 랜드마크 조성 박차

450억원 투입 2026년 완공 목표

전국대회 유치 공인경기장 마련

인제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역내 문화·체육·복지 랜드마크 역할을 할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이 본격화된다.

인제군은 스포츠도시 도약 기반 마련과 스포츠마케팅·지역경기 활성화, 주민 문화·체육복지 증진 등을 위해 인제종합운동장을 추진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뜬다.

군은 2024년 3월중 인제종합운동장 공사 입찰 공고를 내는 등 본격적인 공사 착수 준비에 들어가 올 상반기중으로 착공, 오는 2026년까지 국·도비 포함해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해 완공할 예정이다. 인제종합운동장은 인제읍 남북리 517의2번지 일원 부지 10만6342㎡ 규모에 5000석 관중석과 8개의 육상 트랙, 천연잔디구장과 보조구장 등을 갖춘 대규모 체육시설로 지어진다.

군은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신설 사업 승인을 받아 그동안 문화재지표조사, 토양오염정화작업, 3대 영향평가(소규모환경·재해·교통), 건설기술심의, 조달청 원가심사, 사업부지내 국방부 소유 토지 소유권 이전 등 사전 작업과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인제읍 남북리에 조성되는 인제종합운동장이 올해 상반기중으로 착공된다.

인제종합운동장이 오는 2026년 완공과 더불어 대한육상연맹으로부터 제2종 육상경기장 공인인증을 받게 되면 전국단위 육상종목 대회 유치도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군도 향후 도민체전과 국제친선대회 등 전국규모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지난 2023년 60개 대회와 56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75억원의 지역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올해는 60개 스포츠대회와 70개 전지훈련팀을 유치해 92억원의 경제효과 창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김춘미 체육청소년과장은 "인제종합운동장이 완공되면 도민체전을 비롯한 전국규모의 대회 개최 여건을 갖추게 된다"며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교원 kwchine@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2일 (화)
사설/칼럼 19면

공보의 파견 지역 의료공백 우려

-도내 의료 취약지 진료… 대책 마련 절실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이탈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를 병원에 파견하기로 해 지역 의료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강원 도내 의료 취약지에 배치돼, 부재 시 지역 주민 건강관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공보의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들마저 대형 병원으로 파견된다면 의료 체계가 더욱 부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환자들의 진료와 치료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비상 진료체계의 일환으로 오는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기관 비상 진료 지원 공중보건의사 파견 협조 요청 공문을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 발송했습니다. 실제 강원 도내에서는 전문의 5명과 일반의 9면 등 총 14명이 파견될 예정입니다. 이 중 전문의 3명과 일반의 4명, 타시도 인원 2명 등 총 9명은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 배정될 계획입니다. 투입되는 인력은 중증·응급 환자의 수술과 진료 지연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건은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입니다. 현재로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도내 지자체는 공보의 파견 내용이 내려와 배정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 내부적으로 진료 대책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4주 동안은 보건지소에 배정돼 있는 공보의가 보건소 업무까지 같이 맡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보건지소가 소재한 지역의 농어촌 주민들의 진료와 치료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도는 의료 인력 부족 및 공중보건의사 의존도가 높은 지역임을 고려해 도내에 적정한 공중보건의사 배치를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따른 전공의들의 집단 사표로 야기된 의료대란이, 농어촌 지역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대형 종합병원에서 일반병원과 보건소, 보건지소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피해는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이어집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지역 의료 체계의 보루입니다. 고령자 등 지역 주민 건강을 보장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의료대란 종식을 위한 정부와 의료계의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지만, 2개월 동안의 단기 대책도 뒤따라야 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4년 03월 12일 (화)
사설/칼럼 19면

첨단산업 공약 실천이 중요

-'청사진' 설득 위해 강원 희생양 역할 덜어줘야

춘천에서 어제(3월 11일) 수열에너지 융합클러스터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강원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하겠다며 기업혁신파크, 글로벌혁신특구 등 국가 지원 발언이 있었습니다. 2033년까지 기업혁신파크가 조성되면 일자리 4만여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청사진도 제시됐습니다. 다만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해도 5~10년 정도 걸려 도민에게 확실한 신뢰감을 주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공개 발언과 달리 실행 정책에서는 강원지역이 소외되면 엇박자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3년 7월 중앙정부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곳과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5곳 등 12개소를 선정할 당시 강원은 도외시 됐습니다. 춘천권과 원주권에서는 지역 차원에서 공들여온 바이오산업 및 헬스 의료산업 특화 육성이 국가산업단지로 도약하길 열망했으나 좌절돼 실망감이 큽니다.

이번에 착공한 수열에너지 융합클러스터 역시 회의적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수열에너지는 여름철 시원하고 겨울철 따뜻한 물에서 열을 이동시켜 얻는 청정에너지로 히트펌프시스템 및 관로 설비, 전기공사 등 막대한 초기 설비비용이 투입돼야 합니다. 아직 경제적 효용 가치가 확보되지 않은 상용화 이전 단계로 민간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부문입니다. 지난해 수자원공사에서 입주 기업 분양에 성공하지 못한 데는 단지 조건이 까다로웠던 것 외에 경제타당성에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화천·양구·인제 3개 지역과 밀접한 화천댐 용수의 용인반도체국가산단 공급 방침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화천댐의 가용 용수 1일 110만t 중 절반이 넘는 60만t을 경기도 용인으로 직접 공급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 강원이 수도권의 먹는 물은 물론 산업용수까지 무상 공급처로 전락한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사계절 상시적으로 물이 방출될 경우 농업과 관광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강원도는 늘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해 온 지역" "더 이상 희생과 헌신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윤 대통령의 언급과 달리 화천댐 물자원의 용인반도체산업 공급 계획에서 보여주듯 여전히 강원은 수도권의 희생양 역할을 강요받습니다. 강원 첨단산업 발표가 신뢰를 얻으려면 강원의 희생양 역할부터 중단시키고 실속 있는 단기사업부터 착수해야 가능합니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12일 (화)
사설/칼럼 19면

태백·삼척 고용위기지역,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최근 태백과 삼척 폐광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을 의결했다. 고용은 물론 경제지표, 지역사회 분위기 등에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폐광지역에 적기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이제 태백과 삼척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정부의 결정에 달렸다. 정부는 조사단을 꾸리고 현장 실사를 벌여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한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고용 감소가 확실시되는 곳이다. 선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실업자 생활안정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문제가 공론의 장으로 나온 만큼 정부는 최대한 빨리 법적 검토 및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지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연간 최대 300억 여원 규모의 국비가 투입되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속도를 내 지역 주민들에게 숨통을 터 주기를 바란다.

태백과 삼척 지역은 완전 폐광 시 9조원 이상의 피해와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도가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태백의 피해 규모는 3조3,000억원, 삼척의 경우 5조6,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삼척 도계읍에 가장 많은 5조3,000억원의 피해가 집중되고 태백 장성동의 피해도 2조5,000억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태백 지역내총생산(GRDP)의 13.6%, 삼척은 9.6%가 증발하는 셈이다. 또 태백에서는 876명(장성동 722명), 삼척 1,685명(도계읍 1,603명)의 대량 실업이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현실은 지자체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용위기지역은 2년간 유지되며, 1년 범위 내에서 3회까지 연장 가능하다. 2018년 조선업 불황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정된 목포·영암·해남은 4년간 2조5,889억원, 조선소 가동 중단, GM 폐쇄 등의 위기를 겪은 군산은 1조4,399억원이 투입됐다. 중국은 2004년 '국가광산공원 프로젝트'로 폐광지역 복원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국가 주도로 추진됐으며 책임자는 총리였다. 아직 이렇다 할 대체산업이 없는 태백과 삼척은 이대로라면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다. 폐광으로 비롯된 불황이 지역 전체를 잠식하고 있는 태백·삼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지역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고 있는 폐광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반드시 실현돼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주민들이 '희망'의 불씨를 살릴 수 있도록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4년 03월 12일 (화)
사설/칼럼 19면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도 약속' 빈말 돼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 도청에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 지자체, 강원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의 주력산업 디지털, 바이오 첨단산업 기지 재편, 청정 강원의 아름다운 자연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주민이 어디서나 잘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산이 높아 골이 깊다는 것은 아름다운 경관과 더불어 강원특별자치도 사람들에게 오지의 소외감을 함께 보존해 두었다. 무공해 청정지역이라는 자부심 이면에 숨겨진 낙후의 식은 '미래의 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고 감추어지지 않는다.

강원특별자치도 방문, 도청서 민생토론회
춘천 광판리 일대 기업혁신파크 지원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조성 밝혀

냉전의 바다로 고립되고 휴전선으로 양분된 강원특별자치도의 모습을 일컬어 '안보의 첨단도'라고 미화해 봤지만 그것이 강원특별자치도 주민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다. 이번 강원특별자치도 민생토론회는 지역의 이런 현실과 현안 해결을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하고 정부의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와 함께 지역의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이 참여, 토론했다는 점도 평가할 만하다. 물론 대통령이 주재하는 토론회에서 지역 실정과 지역 주민의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책이나 지원 약속을 이끌어내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그러나 주목되는 점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기업혁신파크 조성 사업을 직접 밝혔다는 점이다. 춘천시는 이미 남산면 광판리 일대에 최소 지정요건의 7배가 넘는 360만㎡ 부지를 확보했으며 남춘천IC와 3분 거리, 서울까지 30분대로 접근성이 탁월하다. 여기에다 기업도시를 이끌고 나갈 확실한 선도 기업으로 더존이 존재하며 여러 기업이 이미 참여 의사를 비추고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또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에 대해 개발 계획을 조기에 수립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며, 진입도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기회발전특구,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등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여러 토론회에서 지역의 현안이 활발히 논의됐지만 이번처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경우는 드물었다.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대통령의 약속이 선언적 의미에 머물지 않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가 나와야 한다.

윤 대통령은 새해 1월4일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 계획을 소상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현안이 원활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원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국회 입법이 있어야 가능한 것도 있다.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총선을 앞두고 영향을 미치는 토론회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